

1998년 3월 30일 월요일

□대학개혁 문제없는가

무리한 구조조정, 학문의 획일화 야기

다양하고 균형적인 학문 발전을 위해 교육개혁 필요

김 한 상
(서반아어과 교수)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현 대통령은 국난으로 정의했고 새 정부는 국난극복을 제1과제로 삼았다. IMF로 집압되는 우리의 국난은 이 세 글자를 중심으로 어원적 의미와 무관한 IMF시대, IMF화와 등 무수한 신조어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사회 전반에는 절망감과 불확실성 속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 대학만이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빼고, 중복부자를 피하고, 경쟁력있는 전공을 살리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학부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한마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이 대학의 기본 기능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바탕에 둔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이 과연 대학의 청학아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장기적 관점 속에서 여파된 것인지? 너나 할것없이 모두 앞다투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동안 쌓아놓은 과거의 업적은 모두 부인되고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또 다시 획일화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이틀 전에 공포되고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에는 '대학의 학생은 복수의 학과로 구성되는 단위별로 모집한다'고 학생의 모집단위를 제시하고, '다만,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별로 모집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부가 동일한 시행령의 제2조를 통해 '학교가 다양하고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면서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이 시행령의 제정 취지로 삼았지만, 이 취지에 위배되는 제27조를 신설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이제 학부제의 시행을 당연시 하고 더 나아가서 무전공 입학의 학사교육원 모델을 도입하려는, 소위 한 걸음 앞서나가는 대학들도 있기까지 하다.

과거 김영삼정부의 이른바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세 학사모형은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및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각각 대학원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및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즉, 전국의 대다수의 대학들이 교육중심대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고 전공에 있어서도 백화점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대학들이 가급적이면 제시된 세 모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학별로 특성을 높이자는 것이 교개위의 의도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대

전국의 대학들이

교육중심대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고 전공에 있어서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이 학부제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대학이 궁극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중심대학이나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학부제가 전공교육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학과제가 오히려 적절한 학사모형이라는 의미다.

학부제의 기본 취지는 졸업학점의 1/4에 해당하는 최소의 학점만 이수해도 전공으로 인정하므로써 복수전공 및 전공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전공선택권을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삼은 학생에게는 학부과정에서 기초와 교양을 폭넓게 구비할 수 있

으므로 후일 대학원에서 심도있는 전공습득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제는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견 교육수요자를 위한 이상적 제도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대상은 대학원진학을 원하는 일부 학생들 뿐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하향조정된 불완전한 전공을 이수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학생들 로하여금 일종의 전공편식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종래에는 학문의 불균형적 발전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개위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개혁을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학부제의 도입을 교육개혁 내용 중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 삼자.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학부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실용성이 약한 전공들, 특히 모든 응용과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과학 및 인문과학이 존재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실상가상으로 IMF한파와 더불어 대학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을 맞아 현 대학의 입장은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조차 학부제를 아주 매력적인 모형으로 생각하는 차에 교육부까지도 개별학과 단위로는 학생모집을 할 수 없다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공포하자, 대학들은 일제히 학부제를 도입하려 준비중에 있다. 구조조정은 곧 학부제의 도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여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상이탑 또는 지성의 보루라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학부제의 학사모형으로 획일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이 되길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대학들이 학부와 대학원 학생의 비율이 적어도 1대1이 되는 연구중심대학이 되기에 여건이 충분하다고 믿는 것인가? 시행령 제2조에 명기된 대학의 특성과 다양성의 발전을 위한 자율성의 보장은 한낱 미사여

구에 불과한 것인가? 짧은 소견이지만 학부제를 시작한 미국에서도 일부의 대학만이 대학원을 중점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고, 대학을 처음으로 만든 선진 유럽에서도 학부제는 커녕 수백년 동안 이어온 학과제의 학사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학이란 굳이 저명한 교육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교육은 점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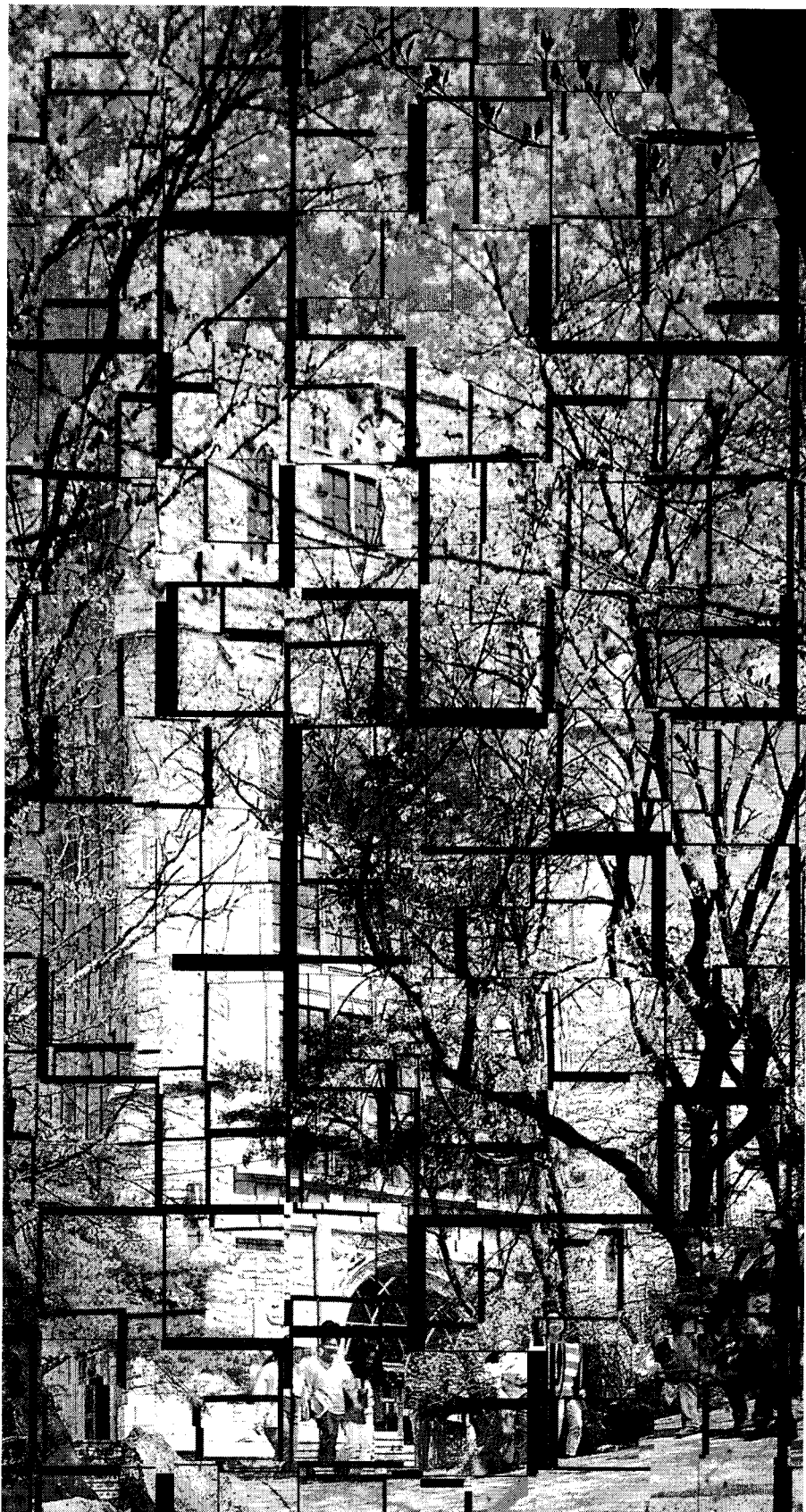
발전하는 역사의 산물이다.

후손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학문연구의 집합체이다. 어떠한 전공도 보편성의 추구라는 진리탐구의 목적으로 보 호되고 장려되어서 궁극적으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문화 및 문명의 창달로 이어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여건 속에 처해있는 기초학문의 명맥마저도 끊어버리는 학부제의 도입을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대학이 대학답지 못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다.

교육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역사의 산물이다. 우리는 기초과학이 취약함으로 인해 노벨상을 한 번도 타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교육 자체는 항상 시류에 따라 우왕좌왕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리라는 어설픈 희망은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다. 여차피 또 하나의 정치논리가 과거의 정치논리를 대체할 뿐이다. 이제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스스로 찾아나가도록 하자. 천천히, 그리고 균형있게 지금 이 순간보다는 미래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신중히 이루어내도록 하자.



▲대학의 학제개편을 포함한 구조조정은 대학의 근본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은 단지 행정·재정적인 이유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서평·읽어버린 책 속의 향기를 찾아서



〈김상환 외저, 나남출판 펴냄〉

인문학 연구자와 기술관료주의자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기술과학,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술과 인간이라는 고전적인 명제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의 존

□매체의 철학

‘매체’와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조명

재론적 의미와 가치를 헤아려보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현실의 공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해명할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매체의 철학’은 바로 그러한 질문들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나 이색적인 것은 매체, 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저술작업이 일단의 철학자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이다. 책무한이 강조했듯이 이제 매체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인간보다는 기술의 진전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했던 것이 보통이었다.

물론 포스트모던 철학자라 일컬어지던 데리다나 보드리야르 등에 의해 정보통신 기술과 그 영향들이 낱낱이 ‘해체’된 적도 있다. 또한 하버마스와 같은 비판적 사회 학자들에 의해서도 정보통신 기술은 때로

는 희망으로, 혹은 인류의 공적으로까지 몰아세워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매체의 철학’이 가지는 유용성은 한국적 상황속에서 비로소 이뤄지는 진지한 성찰이라는 점에 있다. 최근 한국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었다. 마치 60, 70년대 산업화의 논리 속에서 모든 문제제기들이 사장되고 가리워졌던 것과 흡사하게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문제제기가 수구적이고 반동적이며, 마치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비춰져 왔던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도 기술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인간을 두고 연구하는 모든 학문에서 다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했던 것도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적인 상황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인문학자보다는 기술관료적인

감각이 풍부했던 사람들이, 돈 안되는 비판적 시각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놓고 따지는 이른바 긍정파들의 논리가 지배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기술은 그 자체로 볼 때 무색무취하다. 따라서 기술발전에서 따라 진보하는 매체의 성격도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러한 기술이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라는 점이다. 또한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변화하는 여타의 부문에 대한 인식도 필수적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매체의 철학’은 변화하는 매체의 상황속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와 심리학적, 미학적 문제들, 그리고 이른바 정보화 사회와 밀접어지는 다음세대가 부딪칠 정치경제학적 함의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 문화적, 사회적 환경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점을 간파하지 말아야겠다. 변화를 변화 자체로 수용하는 자세도 있었지만 좀더 적극적이려면 변화를 우리에게 맞게 수정해가는 자세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다.

〈김종현 편집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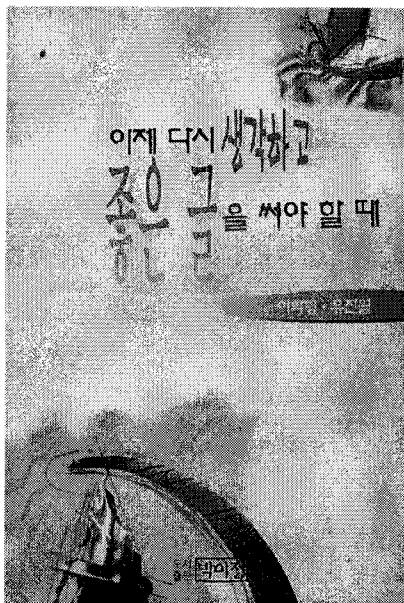
□이제 다시 생각하고 좋은 글을 써야 할 때

오랜 강의경험 담은 실전적 문장론

일상적 소재로 친숙·평이한 서술

김 종 회

〈문학평론가·국문과 교수〉



〈이회형·유진월 공저, 박이정 펴냄〉

우리 대학 국어국문학과 동문인 이회형·유진월 교수의 공저 '이제 다시 생각하고 좋은 글을 써야 할 때'(박이정 간)는, 그야말로 '좋은' 책이다.

이 책은 문장론의 기본기에 충실할 것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원론적이다. 동시에 오랜 대학 강의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실전적 문장론이며 대개의 문장론이 보이는 구태의연한 외관을 과감히 벗어 던졌다.

I부와 II부로 나누어져서 I부는 '생각 기르기', II부는 '좋은 글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 두 항목의 제목은 언뜻 저 중국 송나라 시절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3다(三多)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 문장가 구양수(歐陽修)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하여 '생각 기르기'에는 자기를 버려라, 체험과 지식을 확보하라, 관점을 달리하라, 본질적인 생각을 하라,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라 등 실효성 있는 사고력 확장 내용을 담았다.

또한 '좋은 글 쓰기'에는 글쓰기의 기초, 정서적인 글, 과학적인 글, 실용적인 글로 갈래를 나누어 실체적인 글 쓰기의 지도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이 새로와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설교조의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글들을 소재와 보기로 활용하면서, 이를 친숙하고 평이하게 풀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앞장에서부터 넘겨가면서 전혀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예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고전문학을 전공한 이교수와 현대문학을 전공한 유교수의 넓은 시야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저자 자신들의 글은 물론 문학 외적으로 다각적인 일상사에 관한 글, 동서고금의 이름있는 문헌에서 발췌한 글을 두루 만날 수 있다.

대학 강의실의 교재로 사용할 경우를 배려하여 예문을 전후한 적절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이 책의 저술에 따르는 많은 교실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말미의 실용적인 글에 관한 부분은 이력서, 식사(式辭), 서식(書式), 보조(扶助) 등 오늘날의 젊은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드물었던 공식적인 행사나 경조사에 관한 바른 언어용법이 설명되어 있어 다시금 눈여겨 살펴볼 만하다.

이 교수는 '이덕무의 문학연구'를 비롯하여 수권의 저서를 내놓은 유능하고 주목받는 고전문학 연구자이며, 유 교수는 '한국 희곡과 여성주의 비평' 등 저서와 더불어 연극이론가이자 희곡 창작을 병행하는 재능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일본의 케이블TV

다원화시대 케이블 TV의 생존 전략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이 범람하는 시대다. 여기서 제기하는 케이블 TV도 마찬가지다. 케이블 TV는 꿈의 매체라고까지 표현될 만큼 기대가 컸다. 공중과 방송 3~47지에 익숙해져 온 우리로서는 근 30여개가 넘는 각종 채널은 그 가치 수에서부터 압도적이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최근 어려운 경제난과 함께 신규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내에 있는 각 케이블 업체마다 근 3년간 누적 적자를 기록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최근 다중 TV가 부도를 내고 쓰러졌다는 소식은 현재 케이블 텔레비전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불과 2~3년 전만 해도 케이블 TV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열어가는 선두주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만큼 최근의 언론환경은

'다원화'라는 키워드가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케이블 TV의 위기는 비단 경제난이라는 시장의 위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케이블TV를 둘러싼 언론환경과 국가의 정책, 수요자의 성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케이블 TV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케이블TV'는 현재 국내 케이블TV가 처한 현실을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극복하는데 초점을 둔 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는 일본보다는 미국에서 성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굳이 저자가 일본을 택한 것은 성공보다, 실패의 사례에서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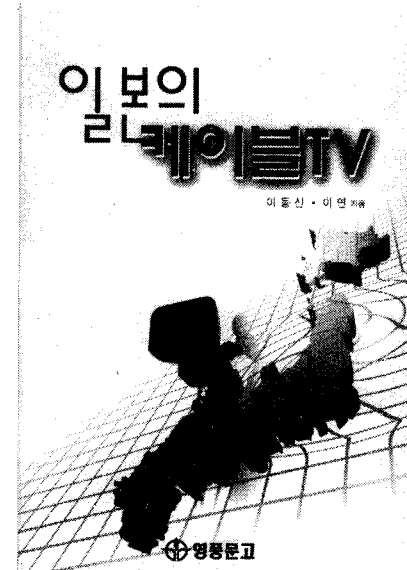
저자가 보기에 일본의 케이블TV실패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기존 공중과 방송의 풍부한 방송환경이다. 대표적 방송국인 NHK를 비롯하여 다수의 민방이 존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은 케이블 TV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감소시켰다. 두 번째는 과다한 조기 투자다. 가입률을 무시한 막대한 설비와 인원 투자가 그 후의 영업에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가 보기에 국내 케이블 TV 상황도 일본의 그것과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방송을 돈으로 사는데 익숙하지 못한 시청자들의 인식이 케이블TV 시장을 협소하고 특수계층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무조건 황금알이라는 사업주체들의 안이한 태도가 과잉 및 중복투자를 불러와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도 하나의 결론들이다. 게다가 프로그램의 축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고 케이블 TV가 정상세대로 오르기까지는 타국의 성공사례는 물론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케이블 TV'는 바로 그러한 타산지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큐리 데이콤과 손을 잡고 한국에 진출할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한다. 수많은 채널



〈이동신 외저, 영풍문고 펴냄〉

과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 방송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지배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왕에 시작된 케이블TV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부〉